**찬양과 율동(1) /홍성건 목사님**

 ****

† 찬양과 율동(1)

저는 모든 예배마다 다 율동으로 찬양하는 것은

예배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.

출애굽기 15장에는 미리암이 소고치고 춤을 추고

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리암을 따라 춤을 추며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

언제 그렇게 했습니까?

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랬습니다.

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노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?

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는데,

그 엄청난 자유함, 그 놀라운 해방감, 그 엄청난 구속의 역사를

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?

그 때 춤을 추며 노래하는 것이 미친 짓이겠습니까?

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노래하는 것이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.

아마 그 큰 역사를 보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요.

이럴 때는 소고를 치고 춤을 추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.

그러나 우리는 율동에 대해 좀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

율동이 찬양의 한 순서로 인식되거나

심심할 때 흥을 돋구기 위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됩니다.

율동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역사 -그 자유-를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.

그러나 가사의 한 소절 한 소절에 맞추어 순서에 따라 율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

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역사에 대해서,

그 자유를 선포하며 몸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.

(홍성건 목사님이 지은 “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” 중에서... )